

# 즉신성불·생활불교의 전당 ‘문 활짝’

## 총지종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서

올해로 창종 33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이 12월 2일 오후 2시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새로운 밀교 중흥을 단념으로 거듭난다. 종단역사사업으로 서울 역삼동 총지사내에 종조전을 건립해 온 총지종은 2년여간의 종조전 건립불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원정기념관’ 불사를 위해 총지종은 밀교의 비법(秘法)과 경계(經軌), 다라니와 수법(修法) 등을 발굴해 왔다. 총지종 종조인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의 창종의 뜻을 기림으로써 밀교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밀교의 새로운 중흥을 도모하겠다는 흥원이 담겼다.

### ●총지종 창종과 정통밀교 수립

‘원정기념관’은 창종조인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업적을 유물을 통해 총지종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또한 총지종의 원력과 각오도 그 속에 담겨있다.

원정 대성사는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는 동시에 본산인 서울 총지사서를 비롯해 전국 36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를 이뤘다.



원정 대성사가 참고로 삼았던 밀교경전



원정 대성사가 남긴 글 시초(時抄)



생존 당시 사중수법에 사용하던 사색권

특히 1980년 입적할 때까지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총지종과 진각종이라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현대밀교사에 큰 획을 그었다.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와 현대 한국밀교사의 궤적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원정 대성사는 종단 운영에 있어서도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총지종의 재단법인화이다. 총지종을 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정재를 보호하면서, 승직자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종단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은 대성사의 큰 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원정 대성사의 밀연국도 건설과 정통밀교 수립에 대한 대원(大願)은 총지종이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양계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불사로 이어져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윤행대도(輪廻大道),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정법밀교를 다시 꽃피운 원정 대성사의 업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 ●현대 한국밀교와 원정 대성사

1600여년전의 불교전래와 함께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민중을 구제하고 슬픈 국난을 극복하며 흥왕했던 한국의 밀교. 그러나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 밀교는 쇠퇴하고 통불교(通佛敎) 속에서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왔다.

이에 원정 대성사는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해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했다. 해방 이후 정신적 공황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정법(正法)으로서 밀교를 펼친 것.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밀교사를 돌아볼 때, 원정 대성사는 뛰어난 통찰력과 혜안으로 당시 어려웠던 사회에 정신적 자유와 자성참회를 주창했던 진각종 창종주 회당 조사를 만난 것은 신생 한국 밀교의 흥복이었다. 원정 대성사의 해박한 불교식과 뛰어난 밀교수법(密敎修法)의 수행력과 가르침은 총지종과 진각종 뿐만 아니라 한국밀교의 새로운 태동과 밀교중흥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국 고리를 끝으로 사라져 버린 밀교정법이 원정 대성사의 오지신력(五智神力)으로 하나 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 현대밀교는 기나긴 잠을 깨고 태동하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밀교의 비법(秘法)과 경계(經軌), 다라니와 수법(修法) 등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불교계에 ‘밀교’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순간이었다.

### ●총지종 소의경전과 수행법

1972년 12월 24일, 원정 대성사는 서울 상봉동에 서울선교부(宣敎部)를 개설(開設)해 개종불사(開宗佛事) 겸 창종식을 거행했다. 이 때 종명을 ‘불교총지종’으로 정하고 정통밀교종단의 성립을 선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밀교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해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원정기념관’은 밀교중흥의 청중 대원을 담은 역사적 장소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서에서 조성돼 12월2일 문을 여는 ‘원정기념관’ 내부 모습.

을 갖추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불교총지종이 정통밀교 종단임을 표방하기 위해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대일경> <금강정경> <대승장엄보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교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승이취육마라립다경>에 의거해 육바라밀에 의한 대승보살도의 실천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리의 기틀을 갖춰 나갔다. 여기에 교화의 방편으로서 준제법을 주축으로 증익(增益)·식재(息災)·경애(敬愛)·항복(降伏) 등의 사중수법을 채택했으며, 아사리들을 위해 여러 가지의 밀교비법과 관법(觀法)을 경전에서 마련했다.

### ●총지종 발전상

총지종은 정통밀교의 가치를 세운지 7년만에 30여 사원을 개설하고 종무행정기관인 총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할 연구기관 법장원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처처불공 시시불공(處處佛供 時時佛供)’을 강조한 원정 대성사는 모든 불사와 법회를 간소화함으로써 밀교수법의 대중화에 진력,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심오한 밀교의 비법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인 것이다.

원정 대성사의 밀연국도 건설과 정통밀교의 수립에 대한 대원은 총지종이 한국최초로 양부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원정대성사의 입적과 원로 스승들의 잇따른 유고로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던 교세가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으나 이제 총지종은 새로운 도약의 자세로 꾸준히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 ■ 원정 대성사(1907~1980)는

## 현대 한국밀교의 개척자

현대 한국밀교의 개척자이며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사신)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 정우(淸佑)로 개명했다.



어려서부터 비범해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유년시절에 이 미사리삼경을 통달하고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잠시 관공과 교육계에 종사했다. 이후 불교에 큰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했다.

한국전쟁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총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승화성전> <총지법장> 등을

편찬하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틀을 확립했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던 중 진각종의 수행체계에 <준제관음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원정 대성사는 한국의 현대밀교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놓친 점을 안타깝게 여겨, 이른바 ‘준제파동’의 외중에서 진각종을 떠나 밀교의 비법으로 정진하시던

중 1972년 4월 7일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교상확립에 착수했다.

그 해 8월 21일 법신 대일여래의 가지력과 원정 대성사의 통찰력으로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밀교의 기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원정 대성사는 오랜 은거의 수렴을 거두고 정법홍포를 발원하여 1972년 12월 24일 드디어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 총지종 종조 ‘원정 기념관’ 개관불사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뜻을 기리는 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사부대중을 모시고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33년 (불기 2548년) 12월 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합장